

전남도, 폭염 대비 24시간 상황관리체제

재해대책본부 가동...폭염 대응 TF팀 3반 구성

무더위쉼터·그늘막 등 생활밀착형 저감시설 운영

전남도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폭염 대응 TF팀 등 재해대책본부를 가동,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수립한 '2019년 폭염대응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건강관리지원반 등 폭염 대응 TF팀을 3반으로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체육관과 급용기차 등 공공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해 7445개소를 운영하고, 쉼터 이용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하는 등 이용자 편의 위주로 단락을 운영한다.

폭염 기간 도민들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도록 각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2억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다.

또 폭염 대비 항구대책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 원을 확보해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환풍기, 쿨링포그를 352개소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5000만 원을 교부받아 205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기존 축사 냉·난방 시설 개선과 가족 체력 강화 대책에 100억 원, 가족재해보험가입비 지원에 60억 원,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 방법 개선 사업에 6억 원 등 총 166억 원을 지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통저를 위한 그늘막 쉼터.

임채영 도민안전실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

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제16회 총장축제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광주 동구가 '제16회 추억의 총장축제' 기간 중 펼쳐지는 경연프로그램 참가자를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단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대학가요제 리턴즈 ▲레트로 댄스경연대회 ▲리폼경연대회 등 3개 분야다.

먼저 올해 3회째를 맞는 '대학가요제 리턴즈'는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학가요제·강변가요제 수상곡을 편곡·연주한 공연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레트로 댄스경연대회' 역시 1970~90년대 대중가요와 팝송을 소재로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면 된다.

서구, 희망배달마차 나눔장터 개최

광주 서구는 지난 7월 30일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광주신세계와 함께 상무2동행정복지센터에서 희망배달마차 나눔장터 열었다.

'희망배달마차'는 ㈜광주신세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매월 복지단체 또는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운영된다.

배달마차는 매월 1톤 차량을 이용, 약7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대상자가 현장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식 마트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상무2동에서는 복지소외계층 60세대가 마트를 방문해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받았다.

남구, 승강기 갑힘 등 사고발생 대응력 키운다

광주 남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역시 흔하게 발생하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7월 31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 오후 3시부터 남구청 2층 청사에서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이 펼쳐진다.

이번 훈련에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부소방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청사 유지보수업체 등이 훈련에 함께한다.

합동훈련은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혀 있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짐작한 초동조치 및 구조가 이뤄지기까지 훈련 전반의 과정이 실천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 지역지활센터 성과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

광주 북구가 전국 지역지활센터 사업실적 평가에서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7월 31일 북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230개 지역지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2018년 지역지활센터 성과평가'에서 관내 3개 지역지활센터 중 2개 지역지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동산·희망지역지활센터와 함께 ?인문학 강좌 및 경영컨설팅 워크숍 개최?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밀착형 사례관리?자활생산물 홍보 및 자활기업 우선 구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자활사업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북구는 지난 7월 5일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의 자활기업 부문에서 북구일터지역지활센터의 ?취소업종 근로자 처우개선?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고용창출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산구 우산·월곡동 아이들 동네 워터파크 물놀이

7월 31일 '우산 월곡 청소년 놀이 공간 만들기 협약체(대표 서수연)'가 광주 광산구 우산동 어등어린이공원에서 우산·월곡동 아동과 청소년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울한 동네 우울한 워터파크 풍덩풍덩' 행사를 열었다.

우산동과 월곡동의 첫 글자를 딴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어등·월곡초등학교와 월곡·하남중학교, 하남중합사회복지관,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등 민관이 합동으로 조직한 협약체의 기획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은 주최 측에서 마련한 물놀이, 청소년 체험 행사장, 먹거리 부스 등을 둘러 친구들과 여름 한나절 추억을 남겼다.

임형택 기자

광주 교육계 '우면파워'

신규 교사·공무원 10명 중 7~8명

광주교육계에 '여성 파워'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신규 교사와 교육공무원 10명 중 7~8명 꼴로 여성이다.

지난 7월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직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34명 가운데 여성이 92명으로 68.7%를 차지했다. 전체 합격자를 연령별로 나누면 10대가 2명(1.5%), 20대가 92명(68.7%), 30대가 35명(26.1%), 40대는 5명(3.7%) 등이다.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여풍(女風)은 재확인됐다. 올해

최종합격자 가운데 초등은 85%, 중등은 75%가 여성으로 채워졌다.

광주의 경우 초등 합격자 34명(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중 여성이 29명에 달했고, 특히 유치원은 13명 모두 여성이고, 특수학교 교사 11명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공립 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될 중등 교원도 최종 합격자 99명 중 74명(75%)이 여성으로, 전년도 64%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교단은 물론이고 교육행정직에서도 여성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광주시 '안전점검의 날'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광주시는 8월1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자치구와 합동으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 7월 31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 보도 등으로 8월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광주시는 이날 관내 4대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을 돌아다니며 계도와 함께 리플릿을 배부하며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안전분야 각종 불법행위와 생활속 안전부시 관행을 개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 활동도 강화한다.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장, 재난·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들로 5개 자치구별 40명씩 총 200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은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연중 점검하고 안전신문고 신고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안전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한다.

또 안전 취약지역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일대 등을 유치원, 초등학교 방학 전후에 맞춰 집중 점검한다.

이평형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안전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선제적 점검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인천공항↔광주' KTX, 수영대회 기간 1만4천명 탔다

대회기간 매일 7편 왕복 운행

지난해 동기비 이용객 13%↑

2019 광주수영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임시로 운행했던 인천공항발 광주행 KTX 열차에 1만400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회기간 KTX 열차는 인천공항→광주 송정역 4편과 송정역→인천공항 3편 등이 매일 7편이 운행됐다.

3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린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인천공항→광주

송정역 KTX 열차를 이용한 승객은 1만4576명으로 집계됐다.

KTX 열차가 정상운영 중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899명보다 승객이 13% 많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 발 KTX 열차가 다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인천공항 발 KTX 열차는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대회기간만 운영한 것일 뿐 다시 운영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KTX 열차는 탑승객 수가 적어 지난해 7월말



부터 운행이 잠정 중단돼 왔다. 그러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가 대회기간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를 인천공항에서 광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공항철도간 임시 운행 합의가 이뤄졌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년 단 60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 화 자 (480805-2632911)
최 후 주 소 : 여수시 돌산읍 예교길 28
등록기준지 : 전남 여수시 화정면 월향안길 15의 6

위 망 김화자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8월 1일

공 고 인 : 김은주, 김은미, 김대성, 김대진.
주 소 : 여수시 쌍봉로 219, 207동 506호(신기동, 주공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7월 25일
공고기간 : 2019. 8. 1 ~ 2019. 10. 1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세무기장 · 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정 현(1970. 09. 13생, 2019. 01. 14. 사망,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306,101동 202호(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2019. 03.29. 광주가정법원 2019년 단5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07. 12.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재산상속한정승인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하여 망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19년 단539 상속한정승인
공고인: 박은하
광주 광산구 장신로 306,101동 202호(신창동,대광로제비앙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 07. 12.
공고기간: 2019. 08. 01부터 2019. 10. 01까지(2개월 이상)
신고장소: 광주 동구 지산로 71-1(자산동) 법무사 조기혁 사무소
전화 : 062-236-1255, 1257
2019. 8. 1.